

투데이 칼럼

무주군과 군민들의 발전을 빌면서

이번에 명예무주군민에 추대되었다. 이는 2만4천여명 무주군민과 함께하는 일원이 되기에 영광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山水 수려한 두메마을 안성면 명천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무주하면 예부터 누구나 구천동을 떠올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지 중의 오지로 인식해 왔다. 실제적으로도 군(郡)의 대부분이 높은 산지로 형성돼 있고, 6개 읍면의 작은 행정구역에 면적과 인구도 극히 적은 편이다. 또한 경지면적이 적고 산업시설이 거의 없는 관계로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다. 그래서 내 어릴 때만 해도 해마다 봄이 되면 양식이 떨어져서 초근목피로 연명을 해야 했다. 당시엔 전 국민이 보릿고개를 겪을 때였으니 경작지가 적은 무주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다.

뜻하지 않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살길을 찾아 나서야 했다. 고향에서 간신히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다니다 18살 되던 해에 혈연단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서 다치는 대로 일을 해 가면서 간신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 되고자 시험 준비도 열심히 했다. 다행히 합격이 되었다. 공무원의 길로 들어서면서 경제기획원, 청와대, 사회정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를 옮겨 다니면서 큰 과오 없이 공직자로서 30여년을 봉직하였다. 공무원을 그만두고서도 수협중앙회(부회장), (주)코레트신탁(대표이사 사장), (주)에우인터내셔널(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등에서



강형수 전 외교통상부 통상지원위원

임원직으로 있으면서 맑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 이전 자녀(3남매)들도 모두 장성하여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으며, 지금은 테니스와 골프를 치면서 아내와 함께 소일하고 있다. 무주를 떠나 근 60여 년 동안 출향민으로서 걸여온 흔적들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명예군민이 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날 공직자로서 걸어 온 길은 나에겐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한다. 1000년대와 2000년대 두 밀레니엄(Millennium)과 20세기와 21세기 두 세기(Century)에 걸친 현대(稱代)를 살아오면서 반만년통인이나 지속돼 온 운 계의 가난을 앓고, 또 최 빈곤국가에서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대국으로 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의 잦아들 속에서 이룩한 것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더 크다고 본다.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낸 것이다. 내 나이 지금 80에 불과하지만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몇 천 년을 살아 온 느낌이다. 내 어릴 때 사용했던 원시적인 물건들이 우리세대에 모두가 현대 화 되었다는 때문이

다. 호미, 낫, 지게, 도리계 등 원시적 농기구들은 모두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등으로 기계화되었고, 별결계 벗겨진 황량한 산 밑의 쓰러질듯 한 초가집과 천수답, 논두렁 발두렁 사이길 따라 지게지고 다니던 곳들이 지금은 질투픈 산 밑의 아담한 기숙, 잘 정리된 논과 밭, 확 트인 포장길을 달리는 자동차 등 참으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국민소득도 1인당 60여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이에 편승하여 무주군도 그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마치 가을보리가 불보리에 비해 겨울을 거치면서 더욱 풍성하고 견실해 지는 춘화현상(春花現象)과도 같이 무주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열악한 환경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 군민이 합심하여 일궈낸 일기어디 더운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다.

군내에는 전혜의 자원 덕유산국립공원이 있고, 그 자리에는 구천동계곡과 같은 골짜기들이 즐비하여 기암괴석과 크고 작은 폭포, 소와 담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고, 208개곡 8천만 배전도인들의 성지 태권도원이 건립되면서 세계태권도회

가 개최되고, 해마다 문화관광의 대표축제인 반딧불축제가 열리는가 하면, 겨울이면 스키장이 개장되면서 전국의 스키어들과 관광객들이 몰려 들고 있다. 또한 머무와인과 천마사과, 호두, 인삼 등 농·특산물을 비롯하여 한과와 참기름, 청국장 등 질 좋은 다양한 생활물품들이 생산되고 있어 군민들의 생활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내 어릴 때 뛰어 놀던 고향 명천도 그동안 많이 변모되었다. 송어마을 체련장이 만들어지면서 '바울로 가는 여름축제'가 열리고 있고, 이렇듯 발전해 가는 고향 모습을 보노라니 한층 기분이 좋다.

그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고향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는 거의 참여해 왔으며, 재경무주군민회에도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직(교문, 부회장 등)들을 두루 맡아 보면서 행사마다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06년에는 전북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피지자 모임인 공정동우산우회 회장직을 10년 이상 맡아 보고 있으면서 불가장로 기회가 될 때마다 버스를 대절하여 덕유산과 구천동 계곡, 적상산 등을 전 회원들과 함께 찾고 있다. 그때마다 맛 집에 들러 고향의 별미 어죽을 먹고 무주의 맛을 만끽하고 돌아왔다. 무주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도 없는 사람을 명예군민이 되게 해 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무주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미력하나마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할 생각이다. 무주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들의 복된 날마다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기고문

한 밤에도 폭풍과 싸우면서 보낸 여름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가을바람이 불고, 처서가 지나 한가위 명절 가쪽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워야 되는데 한 순간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어 행복했던 가정이 파멸에 이르렀다.

얼마 전(지난 8월 27일) 다슬기를 채취하려 저녁에 나간 사람이 다음날 아침까지 소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나갔다. 수색범위를 정하고 수색을 하던 중 3m 깊이에 불빛이 보여 확인하니 안타깝게도 실종자의 씨늘한 주검이었다.

다행히 랜턴 불빛이 보여 빠르게 인양했지만, 다슬기를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주의사항 몇 가지만 알고 다슬기 채취를 했어도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다슬기 채취사망, 무엇이 문제였나?

올해 전북도내에서 벌어진 다슬기 채취에 의한 사망자는 3명이며 무진장소방서 관내에서 1명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요즘 하천에서 무릎정도 깊이에서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이 는 줄 모르고 다슬기 채취를 하고 있다. 채취 시 물에 얼굴을 파묻고 걸어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이 적은 때라도 물속에는 미끈거리는 이끼나 수초가 많이서 미끄러지기가 더 쉽다.

하지만 관내에서 발생한 지난 8월 27일의 다슬기 채취 사망사건은 위와는 다르게 특이한 사례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채취자의 허리춤에



김성진 무진장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 3명장

다슬기가 약 10여kg 매달려 있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슬기의 무게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최종 지정

전주 탄소 국가 산업단지가 최종 지정 되었다.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었다. 2024년까지 동산동 고량동 팔복동 등 66만 평방 미터(20만평) 일원에 2024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부터 착공해 1100명 고용을 목표로 연간 1900억원의 생산 효과를 거두겠다는 야심이다. 그래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탄소산업에 대한 추진 행보에 기대가 크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탄소산업에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여러 번 공표했던 게 다시 생각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탄소산업을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에게 주고 싶은 말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도민들은 탄소산업에 기대가 크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탄소산업도 그동안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전북의 탄소산업에 정부의 눈길이 쏠리면서 지원 약속을 받아냈을 뿐이다. 정부의 지원과 호성산업의 투자와 맞물려 전북의 탄소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이때, 동산동과 고량동과 팔복동 일대를 국가탄

소산업의 중심지로 지정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런데 여기 짚어볼 것이 있다. 도민들은 탄소산업과 관련해 아직은 배가 많이 고프다. 정부의 지원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효성의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 약속이 있다고 해도 탄소산업에 대한 예산 명분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거나와 전북도가 청구한 내년도 예산이 기대한 만큼 반영이 안됐던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고유 관계자들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탄소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계속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리고 탄소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는 도민에게 말하기 위한 내부용이 아니라 정부 부처 쪽을 향한 것이라야겠다. 전북도는 도민에게 약속했던 말의 무게를 생각해라 한다. 우리 전북이 한국탄소산업의 선두주자임을 항상 상기하라는 당부이다.

고용 안정 계속 도모해야

고용 안정을 계속 도모해야겠다. 고용 안정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지역경제가 불안정한 데다 일자리가 부족한 까닭이다.역시나 예전 그대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심각성을 깨닫고 속히 해결해야겠다. 전국 최하위 고용률이라는 이 부끄러운 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난감하다. 정말이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다들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통계청이 때때마다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전북도는 먼저 출산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별일이다. 미취업 젊은이들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젊은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감각이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물어 물어 보려는 움직임이 미미하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겠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

관들도 지역내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관청은 일자리가 예전보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때때마다 발표된 실업률 보도에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듭 말하거나와 청년 고용문제는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해결을 모색해 보고 그만 둘 것도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실적이 낮은데도 그러저러 관청은 것처럼 넘어가려는 것도 그 모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전담 업무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거듭 촉구하거나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분발해야 한다. 고용안정 전국 최하위 성적표를 내던지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야겠다는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